

태권도버거가 보여준 한국식소스의 가능성

폴란드사무소

여름을 '핫'하게 달구고 있는 태권도버거

- 폴란드의 프랜차이즈 햄버거 전문점 바비버거(BOBBY BURGER)는 매 시즌 신선한 조합의 햄버거를 신메뉴로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바비버거가 올 여름을 맞이해 야심차게 출시한 제품은 태권도(Taekwondo)버거로 17PLN(약 5,200원)에 판매되고 있다.
- 태권도버거는 이번 여름 시즌의 히트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재료는 치킨, 구운피망, 토마토, 자색양파, 상추, 오이피클이며 여기에 하인즈의 진한 한국식바비큐소스(Sticky Korean BBQ Sauce)를 곁들여 소비자들에게 강렬하고 참신한 맛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시아 색채가 더해진 퓨전 소스들의 흥행

- 태권도버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식재료는 단연 한국식바비큐소스다. 간장을 베이스로 설탕, 식초, 마늘, 고춧가루 등이 첨가되었으며 전분이 함유되어 있어 묵직하고 끈적거리는 제형을 지녔다.
- 한국식바비큐소스 외에도 현재 폴란드에서는 아시아 색채가 더해진 퓨전 소스들이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폴란드소비자들에게 간장은 이미 친숙한 식재료로 여겨지며 이밖에도 인도의 커리소스, 태국의 피시소스와 스위트칠리소스, 일본의 와사비소스, 중국식 굴소스 등도 대중화되어 식료품 매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1. 바비버거의 여름시즌 메뉴 태권도버거
2. 하인즈의 한국식바비큐소스



나날이 높아지는 이색 소스의 인기

- 폴란드의 소스·드레싱·향신료의 2016년 누적 매출액은 총 12억 8,400만 달러(약 1조 4,650억 원)이며, 테이블 소스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는 제품들은 마요네즈(40%), 케첩(35%), 머스터드(14%) 순이다.

- 대표적인 소스로 여겨지던 마요네즈, 케첩, 머스터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점차 식상하게 여겨지면서 최근에는 이색적인 소스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아직은 낮은 인지도를 지닌 한국식소스

- 특히 육류의 섭취 비율이 높은 폴란드인의 입맛을 고추장, 된장, 쌈장 등이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음식에 한국전통장의 깊은 발효 풍미에 달콤함이 더해진다면 폴란드소비자들에게 부담없고 맛있는 소스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여전히 낮은 인지도 탓에 한국식품점에서만 주로 판매된다는 단점을 지녔지만, 태권도버거처럼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면 한국소스류에 대한 수요 역시 확대될 것이라 전망된다.

폴란드시장 진출과 제품 경쟁력 상승 방안

- 폴란드의 소스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특히 기존의 서구식 소스와 차별된 아시아식 소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이다.
- 또한, 육류를 많이 소비하는 폴란드소비자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한국소스의 폴란드시장 진출은 특히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 이밖에도 건강한 재료로 만든 제품을 선호하는 현지 소비요를 반영하여 무식품첨가물, 무설탕, Non-GMO 소스를 개발한다면 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